

[번역]

유엔 식량농업기구(FAO), GCF와 능력배양 지원 파트너십 공식화

2016.11.11. 마라케시 - 유엔 식량농업기구(FAO)와 녹색기후기금(GCF)가 개도국이 GCF 자금에 접근을 강화하는 활동을 함께 한다는 능력배양기본협정(Readiness Framework Agreement)을 체결했다.

이번 협정 체결은 유엔 기후변화총회가 열리고 있는 마라케시에서 진행되었으며, FAO 부 사무총장 마리아 헬레나 세메도와 GCF 사무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하비에 만자나레스, GCF 국가 프로그래밍 국장인 우세이누 나쿨리마가 서명했다.

FAO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고자 의사결정 및 적응조치 이행 향상을 위한 기술적 안내, 데이터, 도구를 지원하고 있다.

FAO 부사무총장은 “이번 파트너십으로 농업부문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기후 재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, 국가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. 지속가능 농업에 투자함으로써 생산성과 소득이 증대되는 한편 식량 안보도 향상된다.” 고 말했다.

이제 FAO는 GCF 능력배양 사업 파트너로서 국가지정기구(NDAs) 및 인증기구와 함께 능력배양 프로그램(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 Programme) 참여하여 국가의 GCF 활용능력을 강화하는 전방위(cross-cutting) 전담 사업 제안을 개발하게 된다.

능력배양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들은 국가적응계획(NAPs) 및 기타 적응계획과 정 개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. FAO는 이미 NAPs 및 국가적응감축행동(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) 설계를 돕고 있다.

나쿨리마 GCF 국장은 “FAO는 토지·물 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및 활용 분야의 전문지식을 통해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전문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GCF의 소임을 보충한다.” 고 말했다.

GCF는 수혜국의 주인의식과 재원접근 향상을 위해 능력배양 활동 조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. ‘능력배양’ 자금지원은 개도국의 주인의식 향상을 통해 GCF의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 전방위 전담 프로그램이다.

※원문출처 = <http://www.greenclimate.fund/-/un-s-food-and-agriculture-organization-formalizes-readiness-support-partnership-with-gcf?inheritRedirect=true&redirect=%2Fhome>